

## 근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서윤희 | 120호 대한제국실 | 18:00~18:30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근대화는 일제강점이란 민족적 불행의 경험을 하게 하였다. 동도서기를 표방하며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대한제국은 13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라졌다. 광무개혁으로 근대화 사업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보려고 했던 개혁의 싹을 잘라버렸다.

전통시대, 우리에게도 근대의 움직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17세기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독일인 신부 아담 샬을 만나 서양 서적을 가져오는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하멜은 우리나라에 표착하여 13년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한 뒤 우리나라를 유럽에 최초로 소개하는 책을 저술하였다.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실의』와 「곤여만국전도」 등이 중국을 통해 조선의 지식인에게 전해져 새로운 세계(서양)와 정보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서학西學이 전통적 세계관과 전통적 지배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자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거부하게 되었다.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고 1880년대 미국을 비롯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소위 양물洋物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사진기, 축음기, 전차, 철도,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利器는 전통시대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일반 사람들에게 양복, 양옥, 양담배, 양식, 양의, 양산, 양주, 양약 등의 양품洋品은 근대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었다. 어느덧 철도의 그 놀라운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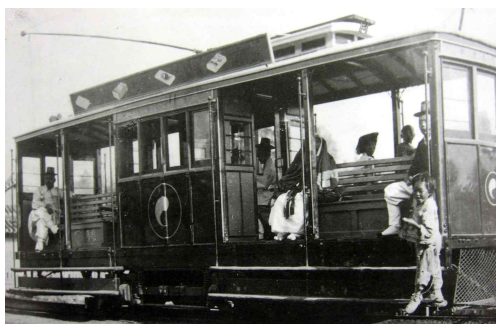


그림1. 상등칸과 하등칸이 있는 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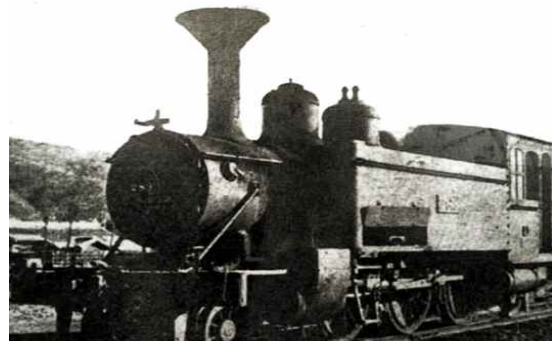


그림2. 1899년 개통된 경인선 증기기관차

제5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24일)

## 중세 이후의 한국 목조 불상

양희정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불상의 신체에서 양감과 입체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듯한 모습은 임진왜란 이후의 불상에서 특히 강조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이다. 새로운 조형의 불상은 조선 초기인 15세기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17세기에 들어서이다. 이 같은 조형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불상이 봉안되는 시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은 15세기 불상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단 위에 봉안되었는데 이때 예배자에게 불상의 상호가 원만하게 보이도록 머리와 몸체의 비례, 머리의 각도를 조정했던 것이 조선 후기에 특징적인 조형성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까지는 동, 철로도 중대형 불상을 다수 조성한 데 비해 조선시대에는 금속상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나무, 돌, 소조가 불상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다. 재료 수급이 용이하고 여러 부재를 조립할 수 있어 크기 제약을 적게 받는 나무가 그중에서도 선호되었다. 고려시대부터 등 뒤의 구멍이나 바닥을 통해 불상의 몸 안에 복장물을 납입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그림1.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1763년, 높이 45.6cm, 신수1355      그림2.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뒷면

제5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24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누란 출토품

강건우 | 307호 중앙아시아실 | 19:00~19:30

2016년 보고서에 소개된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羅布泊)·누란樓蘭 출토품을 소개한다. 이번 특별 공개에는 모두 15건 27점의 로프노르·누란 출토품이 전시된다.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는 샤오허(小河) 묘지 출토품을 통해 선사시대 로프노르 지역의 문화를 소개한다. 샤오허 묘지는 1934년 스웨덴 고고학자 폴케 베리만(Folke Bergman, 1902-1946)의 조사와 1939년 발간된 그의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2002-2005년 신장문화고고연구소(新疆文物考古研究所) 발굴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출토품은 실크로드 남로南路에 처음 진출한 인도-유럽계가 남긴 문화재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기원전 17-15세기 <가죽 신발(皮靴)>, <모자(氈帽)>, <사람 형태의 막대(人形木杖具)> 등이 공개된다.

후반부에는 역사시대의 로프노르, 누란 지역의 문화재가 전시된다. 특히 누란국 영토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 동서교역상의 주요 거점 이었던 누란과 선선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식漢式 제도製陶 기술의 영향을 받은 <대접(盆)>, <시루(甗)>, <합盒>을 비롯하여 누란 L.A. 고성의 건축 부재로 사용된 <목제 기둥(木柱)> 등이 선보인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해외 박물관 소장품도 비교 자료로 소개되어 전시품의 이해를 돕는다.



그림1. <사람 형태의 막대>, 로프노르, 기원전 17~15세기, 나무, 털실, 깃털 등, 길이 66.5cm, 너비 5.6cm(좌), 길이 60.5cm, 너비 5.6cm(우), 본관4041



그림2. <모자>, 로프노르, 기원전 17~15세기, 펠트, 털실 등, 높이 29cm, 지름 24cm, 본관4030



제5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24일)

##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3)

### - 딜문(Dilmun) 문명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타루트 섬(Tarut Island)은 아라비아 북동지역에서 규모가 매우 큰 대추야자 오아시스 중 하나이다. 1960년대에 발굴된 유물들은 연대가 기원전 29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타루트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교역관계를 암시한다. 섬세하게 문양이 새겨진 녹니석 그릇들은 페르시아 남동부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밝혀 주었다. 이 시기에 타루트는 딜문(Dilmun) 문명 중심지 중 하나였다.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4000년대 후반과 기원전 3000년대 초반에 딜문인들이 타루트 섬과 인근 내륙지역에 살았다고 추정한다. 현재 요새가 들어선 커다란 언덕 부근이 딜문의 유명한 항구가 있었던 지역으로 본다. 딜문인들은 해안가와 타루트 섬 뿐만 아니라 바레인 섬에도 거주하였다.

딜문에 관한 내용은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명문 자료에서 언급된다. ‘딜문’이라는 용어는 북동지역 해안가부터 오늘날의 오만까지 동부 아라비아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 딜문은 바다 건너편의 천국으로 묘사되었다. 철, 진주, 대추야자 등의 무역을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인도와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딜문의 정확한 위치는 1950년대까지 미스터리였으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아라비아 동쪽 해안을 따라 이곳에 딜문 문명이 존재했음을 밝혀주는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바레인 섬에서 확인되었다. 더 많은 유물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원전 1000년대 전반기에 딜문이 매우 번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해상 무역로에 위치한 딜문의 지정학적 위치 덕분이었을 것이다. 기록은 딜문인들이 당시 지역 토산품이 아닌 인장, 구리를 거래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진행될 고고학적 발굴 조사들을 통해 딜문과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이외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 것이다.



그림1. <남성상 Statue>, 타루트, 기원전 3천년기, 석회석, 높이 94cm,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